

대학에의 도전

주 국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은 질적·양적으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굴절된 정치사 속에서 대학이 학문만의 장이라기보다는 정치 상황에 반응하는 본거지로서의 역할에 많은 비중이 두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1995년 5월 교육개혁안 1차 발표를 전후해서 많은 대학들이 다소 무리한 방안들을 포함한 자구책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으나, 요즈음은 이 또한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다. 오늘날의 대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대학의 자체 개혁을 이루는 일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첫번째의 도전은 지식전쟁의 시대에 맞는 교육력과 연구력의 확보이다. 우선 대학에는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외부의 상황이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것은 대학답지 못하다. 행동에 의한 현실적 접근이 아니라 인식에 의한 현실 접근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학문의 장으로 다짐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행동으로 보여졌던 대학 자신의 정치적 역량은 재고되어야 하며, 대학 내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는 자제되어야 한다. 대학은 위상에 맞는 연구력을 확보해야 하고,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은 반드시 응용 가능한 현장에 보내져야 하며, 이로 인한 이득이 다시 연구자에게 되돌려지는 환류체제를 골자로 하는 산학협동이 시급하다. 그런 대로 이공계의 연구 여건은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인문·사회계는 연구비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두번째의 도전은 대학교육의 국제화 및 개방화에 대한 적응 태세이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그동안 외국 및 외국인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폐쇄적이었던가는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의 수와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한국인의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잘 나타난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젊은 연구자가 한국에 와서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학생 수요자'에 당연히 외국인이 포함되는 범 국제적 태



목포대 총장 이태근

세를 갖추는 것이 '국제적 낙오'를 막는 길이 될 것이다.

세번째의 도전은 대학평가인정제에 의한 대학들의 생존경쟁 문제이다. 해마다 증원된 대학 입학정원으로 2006년에는 현재의 대학 중 반 정도가 정원 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하리라는 예측도 있으니, 국내 대학들의 자체 경쟁이야말로 대학이 안고 있는 중대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점도 없지 않다. 미국식 경쟁체제의 급속한 도입에 따른 각 대학들의 적응에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에 대응하기도 바쁜 처지에 미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는 작은 규모의 대학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형 국립대학들에 대한 배려가 신속하고 파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 대학들은 경쟁력을 잃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이런 논의가 제기되면 국립대학의 수가 너무 많으니 줄여서 지방 공립화 또는 사립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교육 시설이 국가주도하에 육성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추세를 떠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그만큼의 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가? 더구나 복지국가 실현이 외쳐지는 21세기의 문턱에서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산의 균등분배 또는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파행적 형식논리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 또다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예산 집행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만 작은 규모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대학은 어떠한 형태로든 거듭나야 하며 진리 탐구와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만 한다. 모름지기 대학은 누구나 인정하는 권위 위에 존재하면서도 모든 사람들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존재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모두가 직면한 대학에의 도전에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발전하기 위한 응전이 모색되어야만 미래와 세계를 향한 공존이 가능해진다. ■